

## 중기청 20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 4조 3천억 풀고 상반기 70% 이상 조기집행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올해보다 35% 증액(1조 1,000억 원)된 4조 3천억 원 규모의 「2009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정책자금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금의 70% 이상 조기 집행한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 운전자금 한시적 지원 확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애로 등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금 비중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운전자금의 용도제한을 완화해 인건비, 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소요되는 일반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신규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설자금 지원 시 수반되는 운전자금 한도를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린다.

### 대출금리 최대 3.4%p 인하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와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로, 최근 시중금리 안정으로 기준금리를 0.84% 대폭 내린다. 또한 '기능강화'와 '시장보완' 영역으로 구분해 차등금리를 적용하되, 자금 간 금리차는 0.37%로 현재보다 축소한다. 창업·기술사업화·사업전환 등 기능강화 영역의 경우 4.37%로 적용하며, 신성장기반·지방중소기업·긴급경영안정·소상공인 등 시장보완 영역의 경우 4.74% 적용한다.

#### 〈정책자금 금리〉

구분	08년(기준금리 5.91%)		09년(기준금리 5.07%)		증감(B-A)	
	대출금리(A)	금리차	대출금리(B)	금리차		
'09 신규 대출	창업초기기업	5.38%	-0.53%	4.37%	-0.53%	-1.01%p
	개발기술	5.38%	-0.53%	4.37%	-0.53%	-1.01%p
	사업전환	5.38%	-0.53%	4.37%	-0.53%	-1.01%p
	신규신성장기반	5.38%	-0.53%	4.74%	-0.33%	-0.64%p
	지방중기지원	-	-	4.74%	-0.33%	-
	긴급경영안정*	5.38~8.18%	-0.53~+2.27%	4.74%	-0.33%	-3.44~ -0.64%p
	소상공인	6.03%	+0.12	4.74%	-0.33%	-1.29%p

\*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 공차기금금리 -1.23%p(3.84%)

### 비재무 평가 확대

경영악화로 중소기업들의 재무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감안, 기술성·사업성 등 비재무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또한, 향후 재무제표는 업체의 경영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 〈비재무 평가 비중 확대〉

현행	'09년(안)
○ 비재무평가 비중 (일반기업) : 60%	○ 비재무평가 비중 확대 (일반기업) : 60%~80%
(소자산기업) : 80%	(소자산기업) : 80%~90%
* 소자산 : 자산 10억 원 미만	* 업력 3~5년 기업은 소자산기업 준용



#### 직접·신용대출 확대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위축에 대응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을 확대한다. 특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직접대출 위주로 80% 이상 지원한다. 직접대출은 '08년 1조 원에서 '09년 1조 4,600억 원으로 40% 이상 늘어나고 신용대출은 '08년 5,300억 원에서 '09년 8,000억 원으로 46.8%로 증액된다.

#### 용자제한 부채비율 완화

업종평균 부채비율 산정방식을 중소기업 기준으로 개선한다.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포함한 기준에서 중소기업만 한정한다. 최저(최대) 부채비율 범위는 기존 200%~500%에서 300~600%로 확대된다. 단, 업력 5년 미만,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제한부채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부채비율은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의 3배에서 최대 600%까지 허용한다. 이와 함께 고도성장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및 R&D투자기업의 R&D금액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금액에서 차감한다. 한편, 고도성장기업이란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을 말한다.

#### 비제조업 분야 지원 확대

현재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탈피해 지식서비스, 유통·물류 등 비중을 12%에서 20%로 늘린다. 또한, 용자제한 업종을 일괄 정리해

사치향락·불건전 업종, 고소득전문직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비제조업 분야 업종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 정책자금 신청 서류 간소화

공유정보를 활용해 업체의 직접 제출서류를 현 16종에서 7종으로 줄인다. 국세청 홈텍스 서류 5종은 증진공이 직접 확인하고, 기타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서 등은 현장점검 시 확인으로 대체한다. 사업계획서, 계약서 등 작성이 필요하거나, 업체 고유 자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간소화를 추진한다.

#### 정책자금 잔액 및 연도별 지원 한도 확대

지원잔액 한도를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권은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기능강화 분야창업·기술사업화·사업전환에 대한 연간 한도액도 늘린다.

구분	'08년	'09년
· 창업초기기업육성	· 연간 20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	· 연간 30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
· 개발기술사업화	· 연간 10억 원 - 운전자금 3억 원	· 연간 20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
· 사업전환	· 연간 30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	· 연간 40억 원 - 운전자금 5억 원

**개별 자금별 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확대**

**:: 창업초기기업**

창업초기의 정착 지원을 위해 6~7년차 기업도 포함한다. 현재 업력 5년 미만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에게도 지원한다. 또 창업초기기업 지원취지에 맞게 '창업기업육성자금'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 신성장기반**

녹색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매입을 허용한다. '저탄소녹색산업(태양광, 풍력 등 9개 분야)' 및 '첨단기술 제품(10개 분야 473개 제품·기술)'을 혁신기업에 준해 지원한다. 이들 기업에게는 제한부채비율 적용을 면제하고 시설자금산정기준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단, 시설

자금 잔액한도(수도권 50억 원, 비수도권 60억 원)는 예외다. 신성장자금의 매출공장 매입은 2009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공장매물 급증으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기업 등에 대한 일반 운전자금도 지원한다.

(자금별 지원개요)

구분	예산	용자조건		
		용자한도	용자기간	지원기준
창업초기기업육성	10,000	연간 30억 원 (운전 5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Δ0.7% · 업력7년미만, 예비창업자
사업전환	1,475	연간 40억 원 (운전 5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Δ0.7% · 사업전환, 무역조정계획승인
개발기술사업화	1,580	연간 20억 원 (운전 5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Δ0.7% · 특허 등 기술 보유기업
지방중소기업 기술사업화	1,000	연간 20억 원 (운전 7억 원)	9년 이내 (운전 6년)	· 금리 : 공자금리 Δ0.7%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신성장기반 (지식서비스)	11,900	연간 30억 원 (운전 5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Δ0.33% · 업력7년이상, 시설투자기업 · 협동화사업, 지식서비스업
농공단지입주 기업지원	200	연간 30억 원 (운전 5억 원)	8년 이내 (운전 5년)	· 금리 : 공자금리 Δ0.33%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방중소기업 경쟁력강화	3,000	연간 30억 원 (운전 7억 원)	9년 이내 (운전 6년)	· 금리 : 공자금리 Δ0.33% ·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역전략 · 연구산업 영위 기업 등
긴급경영안정	7,000	연간 5억 원 3년간 10억 원	5년 이내	· 금리 : 공자금리 Δ0.33% *재해기업 Δ1.23% · 자금수급애로 중소기업
자산유동화	400	30억 원 ~70억 원	-	·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 : B~BBB 대상
소상공인	5,000	5천만원	5년 이내	· 금리 : 공자금리 Δ0.33% ·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
폐업자영업자 전업지원	1,000	5천만원	5년 이내	· 금리 : 공자금리 Δ0.33% · 폐업 및 전업계획 소상공인
계	42,555	-	-	-

**:: 긴급경영안정**

우량기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제의 대상인 코스닥 등록기업 등 우량기업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자금애로를 겪는 경우 긴급경영안정 지원을 허용한다. 인건비 등 중소기업의 정상경영활동에서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니어도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면 원부자재 구입자금도 지원한다.

**:: 사업전환**

중국 등 해외진출 유턴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국내이전 계획수립단계부터 컨설팅, 용자 등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제한부채비율 적용은 면제하고 시설자금사정기준을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단, 시설자금의 잔액한도(수도권 50억 원, 비수도권 60억 원)는 예외다.

**- 지방중소기업 지원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별 자금배정 시 재정자립도 비중을 15%에서 25%로 확대해 열악한 지자체

에 자금배정을 늘린다. 또 지역전략산업, 지역연고산업 등 지방의 성장동력을 중점 육성한다. 지역별 중점육성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4,000억 원의 기술사업화자금, 시설·운전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단, 지자체별 전략·연고산업 및 지방중기청장이 지정하는 중점육성분야 산업에 한정한다(기타 추가할 중점육성분야 추후 공고). 운전자금 한도를 7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금지원 잔액한도를 적용한다. 배제, 시설자금 소요금액의 100%까지 지원하는 등 우대한다. 제주 산업특성을 감안해 일부 '용자제외 업종' 제한을 완화한다.

#### - 가 점 제 일 팔 폐 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은 37개 가점항목을 일괄 폐지하고, 기술·사업성 평가항목(본평가항목)으로 통합한다. 37개 가점(진흥자금 21개 + 산업기반자금 10개 + 산업기술개발용자 6개)에서 조사사항 34개(시장성4, 기술성13, 경영능력14, 미래재무3)로 하고 3개는 폐지한다.

### 중기청, 2009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 공고

## 자금 대폭 늘고 창업도 한결 쉬워진다

창업을 꿈꾸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퇴직자, 미취업자 등이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 참여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0개월간 창업역량을 쌓으면서 창업에 드는 비용도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교수·연구원, 대학(원)생이라면 '실험실창업지원 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장 수요조사에서부터 사업장 입주까지 창업단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창업이 한결 쉬워지고 사업성공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와 대상도 크게 늘어나,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창업자금('창업 초기기업 육성자금') 규모가 '08년 6,400억 원에서 '09년 1조 원으로 늘면서, 기업당 지원한도가 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넓어졌다.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창업투자보조금 지원한도 역시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나고, 종전의 3회 분할 지급 방식이 2회 분할 지급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창업지원사업'을 지난 12월 28일 공고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09년 전체 창업지원 관련 예산 규모는 '08년보다 65%나 증액된 1조 2,874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특히,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예년과 달리 조기에 사업계획을 공고해 추진함으로써, 내년 상반기 내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2009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라 1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구체적인 신청 접수 일자와 접수처, 지원내용을 확인하려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http://www.smba.go.kr))나, 창업진흥원(舊 한국창업보육협회) 홈페이지([www.kobia.or.kr](http://www.kobia.or.kr)) 등을 참고하면 된다.